

청담동 옛 프리마호텔 부지에 '한류 거점' 대형호텔 들어선다

서울 청담동 52-3번지 일대 역세권 간선도로변 복합개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옛 프리마호텔 부지가 서울시의 역세권 간선도로변 복합개발 첫 사업지가 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제8차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원 자문단회의를 열어 청담동 52-3번지 일대를 신규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기존 프리마호텔 부지였던 대상지는 도산대로변 노선형 상업지역에 위치한 곳이다. 이 일대는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위례신사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등 다양한 광역교통망 사업이 예정돼 있어 개발 잠재력이 큰 곳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사업 대상지를 주요 간선도로변까지 확대했다. 역세권에 이어 간선도로변 복합개발을 활성화함으로써 도시 대개조 실현을 촉진할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운영기준 개정으로 시는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중첩된 '노선형 상업지역'



프리마호텔 부지 개발사업 조감도. /서울시

을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게 만들었다. 또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 시에는 '복합용도'(전체 용적률의 50% 이상 업무시설 또는 관광숙박시설 설치) 도입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시는 '외국인 관광객 3000만 관광도시'를 목표로 충분한 숙박시설 공급을 위해 '노선형 상업지역' 일대의 용도지역 상향과 함께 관광숙박시설을 도입하면 1.2배 이하의 범위에서 용적

률을 추가해 가산할 수 있게 했다.

이번에 선정된 신규 사업지는 이러한 개정 내용을 반영한 첫번째 케이스로, 관광숙박시설을 용적률 50% 이상 도입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추가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한류관광 문화 산업 벨트 내에 입지한 대상지 특성상 향후 업그레이드된 숙박시설을 통해 한류관광거점 중심지 역할을 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역세권을 고밀 복합 개발해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해 상대적으로 저개발되거나 침체된 지역을 활성화,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는 사업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개정 기준이 반영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이번 대상지 선정의 의미가 크다"며 "금번 사업지 선정을 시작으로 이 일대에 국제업무시설과 관광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늘려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조각상 결선 진출작 중 하나인 장용선 작가의 '도시의 불빛 저편에'. /서울시

서울시, 8일까지 '조각페스티벌' 개최

열린송현녹지광장서 서울조각상 전시

서울시는 이달 2~8일 열린송현녹지광장에서 '제1회 서울조각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행사장에서는 '제1회 서울조각상' 결선 진출작 10점과 디렉터 초청 작품 8점을 만나볼 수 있다.

서울조각상은 국내외의 우수 조각가를 발굴하고, 서울의 공공 공간에 수준 높은 조각작품을 전시하기 위해 올해 처음 제정됐다.

전시장을 찾은 시민들은 대상작 선정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시민

투표(50%)와 전문가 평가(50%)를 통해 대상작을 뽑을 계획이다. 현장에 전시된 작품 소개(캡션)에 표기된 큐알코드를 통해 투표에 참여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오는 11월에 발표된다. 대상작은 노을공원으로 옮겨져 5년간 전시될 예정이다.

개막식은 9월 2일 오후 5시부터 진행된다. 푸른 잔디 위에서 조각작품과 어울리는 현대무용 퍼포먼스, 클래식 거리공연(버스킹) 등을 즐길 수 있다.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조각도시서울 누리집(artinseoul.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김현정 기자

SKY대학 중도탈락 2126명... 5년래 최다

2023학년도 탈락자 현황 분석 대입 후 반수... '의대 행' 추경

지난해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이른바 SKY대학에서 자퇴 등으로 학교를 중도 탈락한 학생이 5년 새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문과 전공으로 교차 지원해 대입에 성공한 뒤 반수를 통해 의대로 이탈한 것으로 추측된다.

1일 종로학원이 최근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서울대·고려대·연세대의 2023학년도 중도 탈락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대 436명 ▲연세대 830명 ▲고려대 860명 등 3개 대학에서 총 2126명이 학교를 중도 탈락했다. 중도 탈락

자는 자퇴뿐만 아니라 미등록·미복학·유급·학사경고 등도 포함한다.

특히 서울대와 연세대의 중도 탈락자는 최근 5년 새 최고치다. 서울대 중도 탈락자는 ▲2019년 273명 ▲2020년 317명 ▲2021년 405명 ▲2022년 412명에서 지난해 436명으로 5년 새 59.7%p 증가했다. 연세대 중도 탈락자는 ▲2019년 511명 ▲2020년 561명 ▲2021년 700명에서 2022년 822명, 2023년 830명으로 급증했다. 단, 고려대는 897명이던 직전년도(2022년)보다 37명(4.1%p) 줄어 2023년 860명이 학업을 관했다.

전공 계열별로 살펴보면, 특히 인문계의 중도 탈락자 증가세가 두드러진

다. 지난해 SKY 대학 중도 탈락자 중 인문계와 자연계 중도 탈락자는 각각 763명, 1321명으로, 인문계 중도 탈락자는 최근 5년 새 최고치다.

대학 계열별로, 서울대 인문계열 중도 탈락자는 112명으로 5년전(61명)에 비해 51명 증가했다. 연도별로 서울대 인문계열 중도 탈락자는 2019년 61명 ▲2020년 55명 ▲2021년 67명 ▲2022년 83명 ▲2023년 112명이다.

자연계열도 중도 탈락자는 크게 늘었다. ▲2019년 191명 ▲2020년 248명 ▲2021년 326명 ▲2022년 318명 ▲2023년 316명으로, 5년 새 65.4%p 증가했다.

/이현진 기자 lhj@

고양 식사동 구제거리 팝업스토어 오픈

오는 5일까지 롯데몰 은평점서

고양시는 '경기도 구석구석 관광테마골목 육성사업'의 신규 사업지로 선정된 식사동 구제거리가 9월 5일까지 롯데몰 은평점 1층 센터홀에서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구석구석 관광테마골목 육성사업'은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내 특색 있는 골목을 발굴하여 생활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 사업을 통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25곳의 관광테마골목이 선정되었으며, 올해는 고양시 식사동 구제거리를 포함

해 총 3개 골목이 선정됐다.

고양시는 특히 숨은 관광명소를 발굴하는 데 주력하여, 2021년 고양동 높빛고을길, 2022년 정발산동 밤리단 보넛길, 2023년 삼삼 낙서예술골목에 이어, 올해 식사동 구제거리까지 4년 연속으로 관광테마골목에 선정되었다. 이로써 고양시는 최대 '경기관광테마골목'을 보유한 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식사동 구제거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구제 상품 매장이 밀집된 지역으로, 최근 예능 프로그램에도 소개되어 도매상과 애호가뿐만 아니라 일반 방문객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교사 제작 수업자료 공유 '수업의 숲' 개통

교육부, 다운로드 실적 따라 인센티브

교사들의 자체 제작 수업자료를 공유하는 '수업의 숲' 서비스가 시작된다. 우수 콘텐츠를 공유하는 교사에게는 다운로드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교육부는 2일 '함께학교' 플랫폼에

우수 수업 자료를 공유하는 '수업의 숲'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선생님들이 제작한 우수 수업 자료를 시·공간 제약 없이 공유하고 수업 나눔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희망하는 교사는 누구나 AI·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 활용 수업, 토의·토

론 및 과제 수행(프로젝트) 수업 등 다양한 방식의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내려받아 그대로 활용하거나 학급·학생 여건에 따라 일부 변형해서 사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선생님들이 저작권 침해 등의 걱정 없이 '수업의 숲'에 수업 자료를 게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수업 자료 제작 및 활용 지침서(가이드라인)'를 제공하고 운영지원단을 운영한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9월 2일 (월) 음력 : 7월 30일

수도권 날씨 23~28℃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21/27, 동두천 21/28, 가평 20/28, 파주 21/27, 서울 23/28, 양평 21/27, 인천 24/27, 수원 23/28, 용인 23/28, 평택 21/30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美 상원 외교위 간사 "태평양 전역에 핵무기 재배치 모색해야" /사진 뉴시스
▲이라크 북부 도로에서 IS의 폭발물 터져...민간 사상자 3명

▲나토 사무총장 "우크라이나 러 급습은 합법적...우린 관여 안 해"
▲中 측량함, 일본 가고시마 부근 영해 침범..."즉각 항의"



▲"수영장 뒤편" 입구까지 잠긴 日 지하도...태풍 '산산' 피해 속출 /사진 뉴시스
▲브라질정부의 X차단 첫 날 국민들 "세계와 단절된 느낌"